

충청북도교육청 공동보존자료관 설립타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 Joint Preservation Library for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노 영 희 (Younghee Noh)** , 곽 승 진 (Seung-Jin Kwak)***
장 인 호 (In-ho Chang)**** , 강 봉 숙 (Bong-suk Kang)*****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지역에 공동보존관 설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각 도서관의 이용률이 저조한 자료를 공동보존자료관으로 이관 후 기존 공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학교도서관의 교육과정의 적극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보존자료관 구축 타당성과 운영방법 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 방법과 현황조사, 그리고 실태조사 방법을 진행했다. 연구결과, 보존서고 공간 적정 수용 장서량 기준이 m^2 당 280권을 적용·산정했다. 즉, 공공도서관 초기 이관 장서는 45,580권, 학교도서관 이관 장서는 121,894권으로 산정하여 총 167,474권을 제안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포화도에 따라 초기 장서량은 총 167,477권이며 매년 10% 증서를 기준으로 개관 이후 30년, 50년까지 측정된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preservation library in the Chungcheongbuk-do region. It aims to transfer low-utilization materials from various libraries in Chungcheongbuk-do to the joint preservation library, thereby improving the efficiency of existing spaces and actively supporting the educational curriculum of school libraries. To achieve this, the study conducted document analysis, a status survey, and case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a reasonable standard for the accommodating capacity of the preservation library space is calculated at 280 volumes per square meter. Specifically, an initial transfer of 45,580 volumes for public libraries and 121,894 volumes for school libraries is proposed, totaling 167,474 volumes. Depending on the saturation levels of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affiliated public libraries and school libraries, the initial volume is determined to be 167,477 volumes, with an annual increase of 10% calculated over 30 to 50 years after the library's opening.

키워드: 충청북도교육청, 공동보존자료관, 설립타당성, 대표도서관, 교육청도서관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Joint Preservation Library, Establishment Feasibility, Representative Library, Office of Education Library

본 연구는 2023년 충청북도교육청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제1저자)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jkwak@cnu.ac.kr) (공동저자)

*** 대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hoinchang@gmail.com) (교신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kbs@jbnu.ac.kr)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3년 11월 15일 논문심사일자 : 2023년 11월 19일 게재확정일자 : 2023년 12월 19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4(4): 55-75, 2023.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3.34.4.055>

* Copyright © 2023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은 장서 증가로 공간 부족 문제에 직면하면서 매년 자료의 폐기로 인한 과정에서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고 양질의 자료 소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장공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자료의 집중적 보존을 실시하여 자료 수명연장 효과 및 귀중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동보존서고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개방형 교육문화복합공간, 메이커스페이스 등 도서관 내부의 새로운 이용자 서비스 공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도서관 내 공간 확보가 필요하여, 재구조화가 진행되면서 도서관마다 자료 폐기가 다량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에 보존관, 특히 공동보존관의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와 실제적인 현상을 고려하여 현재 공동보존관이 다수 설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희운(2013)은 공공도서관이 후대의 이용자를 위한 장서확충 및 보존에 몰두하면서 수장공간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지역대표도서관 주도 지역단위 공동보존서고 건립 타당성 기초 연구를 진행했고, 강은영, 장덕현(2018)은 부산 경남지역 국립대를 중심으로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모형을 제안한 바 있다. 즉, 대학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하면서 자료수장공간 및 열람공간 부족으로 공동보존서고 건립이 별도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곽승진 외(2020)도 충청남도 공동보존자료관 운영방안 연구에서, 도내 공공도서관 62개관

의 장서를 분석하고 개별적으로 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여 참여 주체 간의 협정 또는 협의에 의한 의사결정, 공동보존자료관의 운영 및 운영위원회 구성 그리고 관련 규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지역에 공동보존관 설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각 도서관의 이용률이 저조한 자료를 공동보존자료관으로의 이관 후 기존 공간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교육과정의 적극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보존자료관의 구축 및 타당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충북형 공동보존자료관 설립 및 운영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장서 증가로 인한 공간부족 문제와 자료 폐기로 인한 자료 소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공동보존자료관 구축을 위한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도서관 내부의 새로운 이용자 서비스공간 필요성에 따른 도서관 공간 확보와 효율적인 자료 관리를 통해 학교도서관의 교육과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존서고 공간 적정 수용 장서량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충청북도교육청 공동보존자료관 타당성 분석 및 기대효과 등의 제시를 위해 충북교육청공공도서관 15개소 및 충청도내 학교도서관 488개의 상황과 여건 분석을 실시했다.

2. 선행연구

공동보존자료관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2003

년부터 논의가 이루어져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초기에 주로 공동보존에 대한 개념이나 필요성, 그리고 해외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근래에는 지역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공동보존서고 건립에 대한 연구 및 구체적인 보존서고 운영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해외 사례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가 많이 다루어졌으며, 우리나라의 사례의 경우 국내 최초로 공동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평생학습관의 사례가 있다. 최근 신배재, 곽승진(2021)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를 포함하여 관중별 사서 대상으로 도서관 자료의 공동보존과 효과적 활용에 대한 인식 분석을 통해 관중별 특성과 관계없이 공동보존자료관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그리고 광역단위 공동보존서고 운영주체로는 지역대표도서관이 여러 관중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현민(2006)의 경우 국가 주도의 보존도서관 운영방안을 주장했다. 즉, 공공도서관협력망을 활용하여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중심의 국가보존도서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박옥남 외(2017)은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사례 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국가문헌보존관의 건립 필요성을 제안하고 수행할 기능을 설정했으며, 조용완, 노지현(2013)은 국내외 공동보존서고의 보존환경 분석연구에서, 국외 15개관, 국내 1개관(경기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기본환경, 공조설비, 서가설비, 소화설비, 보안설비, 기타 보존환경으로 세분하여 보존환경을 분석했다.

또한, 서혜란, 김선애, 강은영(2015)은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자료보존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개별도서관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 및 국가적 관점에서의 지역대표도서관 중심 공동보존서고 운영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최미연(2015)은 서울시교육청 공공도서관의 자료수장 실태와 자료의 공동보존에 관한 사서들의 인식조사 분석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공공도서관에 적합한 공동보존서고의 탐색과 건립·운영방안 모형을 제시했다.

한편, 학교도서관 장서관리 실태와 학교도서관 자료 보존을 위한 공동자료관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로, 변우열 외(2016)는 학교도서관 장서관리 실태조사 및 장서관리지침 연구에서 보존이 필요한 학교도서관 장서의 범위 등을 제시했다.

장병진(2019)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자료 공동보존 및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강원도교육청 소속 22개 공공도서관과 623개 학교도서관 장서의 공동보존 방안을 문헌 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했다. 강원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시설 현황, 연도별 자료구입비 현황, 장서증가 현황, 제적자료 현황 등을 분석하여 자료수장 공간 부족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실무사 및 공공도서관 사서 대상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공동보존서고 건립 인식 분석을 기반으로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강원도교육청 공동보존서고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간부족으로 인해 자료를 폐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복본 도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개별 도서관에 흩어져 있는 귀중본을 보존·관리할 수 있

는 점을 강조했다.

강봉숙(2022)은 학교도서관 장서 관리를 위한 KDC 주제별 배가 가능 권수 연구를 바탕으로 90cm 단위 서가 단의 67%를 배열하는 이상적 배가 권수를 초, 중, 고 각각 46.9권, 32.3권, 28.4권으로 도출하고, 90cm 단위 서가 단의 75%를 배열하는 현실적 배가 권수를 초, 중, 고 각각 52.8권, 36.4권, 32.0권으로 도출했다. 이에 근거하여 90cm 단위 서가 단의 최대 배가 권수를 초, 중, 고 각각 70.3권, 48.6권, 42.6권으로 도출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및 운영의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연구와 공동보존서고 건립 및 운영 제안에 관한 연구, 보존환경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며, 충청북도교육청 및 학교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아 지역에 맞는 공동보존자료관을 설립하는데 역할을 하고자 한다.

3. 충청북도 도내 도서관 장서관리 현황 조사

3.1 도내 공공도서관 일반 현황

충청북도 내 공공도서관은 전체 54개관이다.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 수는 38개관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15개관, 사립 공공도서관은 청주시 열린도서관으로 1개관이다. 54개관 소장 인쇄자료는 전체 3,431,503권이고 도서관 규모의 연면적은 전체 202,677㎡이다(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23)(〈표 1〉 참조).

3.1.1 도내 공공도서관 장서관리 현황

도내 공공도서관 장서관리 현황을 보았을 때, 관당 평균 인쇄자료는 63,546권이며 설립별로는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의 관당 평균 소장 인쇄자료 수가 67,424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평균 증가자료 수는 전체 3,753권이며 역시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의 연간 평균 증가자료 수가 4,128권으로 가장 많았다. 연간 평균 제적자료 수는 6,266권이다.

특정적으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연간 평균 제적자료 수가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의 수치보다 약 5배 가량 높은 제적자료 수 평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충북교육도서관과 제천학생회관, 증원교육문화원, 영동교육도서관의 제적자료가 각각 98,635권, 36,048권, 16,977권, 16,514권의 자료를 제적하여 보여준 수치이다.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진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공간 개편과 함께 이용자 친화 소통 공간 중심의 도서관 공간 개편 과정의 변곡점으로 보인다.

〈표 1〉 충청북도 내 공공도서관 일반 현황

설립 구분	도서관 수(개관)	전체 소장 인쇄자료(권)	전체 연면적(㎡)
교육청	15	840,252	32,802
지자체	38	2,562,125	86,127
사립	1	29,126	2,001
합계	54	3,431,503	202,677

이와 더불어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 역시 청주시립도서관, 청주서원도서관 등 청주지역 전통적 랜드마크로 기능해온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이 공간 개편 작업을 거치며 각각 18,950권, 18,886권의 자료를 제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선두 그룹 도서관 이외의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도 공간 개편의 흐름이 이어지며 평균 제적자료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23)(〈표 2〉 참조).

3.1.2 도내 공공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 현황

공공도서관의 공간 재구성과 증가하는 도서관 연간 인쇄자료 수, 제적 업무 가중의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지역에는 공동보존자료관이 부재한 상황이다. 충북도청은 도서관법이 정한 광역대표도서관을 현재 청주시의 청주시립도서관으로 임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주시립도서관이 광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공간 및 조직, 인력 등 한계로 공동보존자료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단위에서는 광역대표도서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충청북도에서 대표도서관 건립을 해야 하고, 충청북도 자료의 공동보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인식하고

도지사 보고를 꾸준히 수행하는 단계에 있다. 구체적 시기는 보고되지 않고 인구 밀집도 등 고려해서 도청소재지 인 청주시에 광역대표도서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내용 정도만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1-2년 내로 충청북도대표도서관 건립이 확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예측되며, 건립이 확정된 이후에도 완공 및 개관까지는 최소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다.

청주시청에서도 지난해 완료된 연구용역인 제3차 청주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에 청주시의 공동보존자료관 건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 외에는 구체적인 추진 사항이 전무한 상황이다(청주시, 2022). 매년 청주시 도서관의 자료 예측을 하고 있으며, 2024년 이후 완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여 수장공간 확보 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중이다. 청주시 청사 이전과 연계하여 2가지 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현재는 전면 백지화된 상황이다. 해당 안은 신 청주 시청사 건립 및 청사 이전 시 구 청주시 청사에 상당도서관을 이전하고, 현 상당도서관 건물을 공동보존서고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다른 안은 용암동 폴리텍 대학을 활용하는 방안이었으나 기존 건물의 수용 가능성 및 하중을 고려하여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표 2〉 충청북도 내 공공도서관 장서관리 현황(2023.8.)

설립 구분	도서관 수 (개관)	관당 평균 인쇄자료 수(권)	연간 평균 증가 자료 수(권)	연간 평균 제적자료 수(권)	관당 평균 도서관 연면적(m ²)
교육청	15	56,017	2,922	15,781	2,187
지자체	38	67,424	4,128	2,675	2,266
사립	1	29,126	2,001	0	1,831
합계	54	63,546	3,753	6,266	2,236

3.2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여건 분석

3.2.1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전반적 상황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은 총 15개 도서관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장서개발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서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개관년도를 보면, 1971년~1980년대 개관한 도서관이 4개관, 1981년~1990년대 개관한 도서관이 8개관, 그리고 1991년~2000년대가 2개관, 2010년에 개관한 도서관이 1개로 대부분 역사가 길게

나타났다.

15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인쇄자료는 총 1,250,201권이며, 연간 제적자료는 256,077권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교육도서관이 8,831㎡로 가장 규모가 크고, 다음은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이 6,025㎡이다. 그리고 충청북도교육문화원이 334㎡로 가장 작고 대부분 1,500~1800㎡로 나타났다. 연면적 평균 2,146㎡로 전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다(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23)(〈표 3〉 참조).

3.2.2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적정 장서량 및 포화도 측정

〈표 4〉는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의 면적대비 자료 권수 산출에 따라 공공

〈표 3〉 충청북도교육청소속 공공도서관 상황(2022)

도서관명	시군구	개관년도	인쇄자료	연속간행물	연간증가 자료	연간제적 자료(도서)	연면적	자료구입비(청원)	비고
괴산교육도서관	괴산군	1971	68,253	48	2,485	5,126	1,874	35,450	연면적 합계는 평균값임
단양교육도서관	단양군	1987	59,543	35	1,612	14,471	783.6	26,700	
보은교육도서관	보은군	1973	47,242	29	3,390	32,443	1,776.2	48,600	
영동교육도서관	영동군	1972	37,874	17	3,483	41,122	1,650	45,510	
옥천교육도서관	옥천군	1987	69,784	22	1,261	4,881	1,834.95	15,000	
금왕교육도서관	음성군	1994	75,461	15	2,025	0	1,584.51	34,980	
음성교육도서관	음성군	1988	49,403	34	2,045	16,923	1,325	30,180	
제천학생회관	제천시	1987	80,541	32	2,395	12,538	1,931.04	30,396	
증평교육도서관	증평군	1995	33,726	48	2,412	23,791	1,563.42	34,150	
진천교육도서관	진천군	1988	58,437	28	1,411	12,591	1,091.55	16,500	
미원교육도서관	청주시	1988	60,785	22	1,181	12,892	806.6	15,981	
충청북도 교육도서관	청주시	1979	422,806	301	16,119	26,757	8,831.2	412,320	
충청북도 교육문화원	청주시	1990	45,711	20	1,874	0	334	32,970	
중원교육도서관	충주시	1990	59,522	40	1,386	13,030	780	19,660	
충청북도 중원교육문화원	충주시	2010	81,113	95	5,374	39,512	6,025	109,490	
합계	-	-	1,250,201	786	4,845	256,077	2,146	-	

〈표 4〉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적정장서량 측정(2022)

도서관명	적정장서(권)				
	종합(일반)자료	어린이자료	유아자료	보존서고	총계
괴산교육도서관	23,862	9,209	1,968	2,065	37,104
단양교육도서관	9,978	3,851	823	862	15,514
보은교육도서관	22,617	8,729	1,866	1,954	35,166
영동교육도서관	21,010	8,109	1,733	1,815	32,667
옥천교육도서관	23,365	9,017	1,927	2,019	36,328
금왕교육도서관	20,176	7,787	1,664	1,743	31,370
음성교육도서관	16,872	6,512	1,392	1,458	26,234
제천학생회관	24,588	9,490	2,028	2,125	38,231
증평교육도서관	19,908	7,683	1,642	1,720	30,953
진천교육도서관	13,899	5,364	1,147	1,201	21,611
미원교육도서관	10,271	3,964	847	888	15,970
충청북도 교육도서관	99,687	25,593	7,419	164,614	297,313
충청북도교육문화원	4,259	1,642	351	368	6,620
중원교육도서관	9,932	3,833	819	858	15,442
충청북도 중원교육문화원	76,717	29,607	6,327	6,628	119,279
합계	431,971	142,616	33,189	139,980	747,756

도서관별 자료 이용공간 및 보존서고 실별 면적에 따라 면적당 해당 적정 수용 장서 수를 산출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적정장서량 측정결과, 교육청 소속 전체 적정장서량은 종합자료 431,971권, 어린이자료 142,616권, 보존서고 139,980권으로 전체를 다 합치면 747,756권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현재 교육청 소속 전체 인쇄 장서량이 1,250,201권으로 적정장서량인 747,756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는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 의해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별 적정장서량 대비 현재 장서량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로, 충청북도교육문화원이 6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0%가 넘는 도서관은 단양교육도서관, 미원교육도서관, 중원교육도서관 3곳이며, 200% 넘는 도서관은 금왕교육도서관, 제천학생회관, 진천교육도서관 3곳이다. 또한 100%가 넘는 도서관으로 괴산교육도서관, 보은교육도서관, 영동교육도서관, 옥천교육도서관, 음성교육도서관, 증평교육도서관,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총 7개 이다.

총 15개 도서관 중 14개의 도서관이 적정장서량 대비 100%을 넘어섰고,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만 100%를 밑돌았다. 공공도서관별 최대 장서량 대비 300%가 넘는 도서관은 충청북도교육문화원, 단양교육도서관, 미원교육도서관, 중원도서관 4곳이며, 200% 넘는 도서관도 금왕교육도서관, 진천교육도서관 2곳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00% 넘는 도서관은 괴산교육도서관, 보은교육도서관, 옥천교육도서관, 음성교육도서관, 제천학생회관, 충청북도교육도서관 6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대 장서량 대비 100% 미만 도서관은 영동교육도서관, 증평교육도서관,

관, 제천학생회관, 진천교육도서관 3곳이다. 또한 100%가 넘는 도서관으로 괴산교육도서관, 보은교육도서관, 영동교육도서관, 옥천교육도서관, 음성교육도서관, 증평교육도서관,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총 7개 이다.

〈표 5〉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적정 장서량 및 최대 장서량(2022)

도서관명	현재장서량 (인쇄자료)	적정 장서량	적정 장서량 대비 현재 장서량 비율	최대 장서량 (적정 장서량 1.2배)	최대 장서량 대비 현재 장서량 비율
괴산교육도서관	68,253	37,104	184%	44,520	153%
단양교육도서관	59,543	15,514	384%	18,616	320%
보은교육도서관	47,242	35,166	134%	42,197	112%
영동교육도서관	37,874	32,667	116%	39,200	97%
옥천교육도서관	69,784	36,328	192%	43,593	160%
금양교육도서관	75,461	31,370	241%	37,643	200%
음성교육도서관	49,403	26,234	188%	31,478	157%
제천학생회관	80,541	38,231	211%	45,875	176%
증평교육도서관	33,726	30,953	109%	37,142	91%
진천교육도서관	58,437	21,611	270%	25,932	225%
미원교육도서관	60,785	15,970	381%	19,163	317%
충청북도교육도서관	422,806	297,313	142%	356,776	119%
충청북도 교육문화원	45,711	6,620	690%	7,936	576%
증원교육도서관	59,522	15,442	385%	18,531	321%
충청북도 증원교육문화원	81,113	119,279	68%	143,133	57%
합계	1,250,201	747,756	167%	911,735	137%

충청북도증원교육문화원 3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15개 도서관 중 최대 장서량 대비 100% 미만인 3곳의 도서관을 제외하고 12곳은 빠른 시일에 장서 폐기 및 이관이 필요한 실정이다.

3.3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여건 분석

3.3.1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전반적 상황

충청북도 학교도서관은 총 484개로, 초등학교 도서관이 264개, 중학교 도서관이 128개, 고등학교 도서관이 82개이다. 1관당 학생 수는 고등학교가 478명으로 가장 많고, 평균 연간 이용자 및 이용 책은 초등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23)(〈표 6〉 참조).

충청북도 초등학교도서관의 경우 268개 학교 중 사서교사 수는 30명, 사서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는 29명이고, 직원 수 107명 중 사

서자격증 보유자는 60명, 미보유자는 47명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도서관의 경우도 128개 학교 중 사서교사는 18명 사서교사자격증 보유 교사는 16명 그리고 직원 수 64명 중 사서자격증 보유자는 44명, 미보유자 수는 20명이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사서 및 사서교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표 7〉 참조).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기준(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 2013)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1인당 5권 이상, 중학교 10권 이상, 고등학교 15권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평균 1관당 장서 수는 초등학교 14,455권, 중학교 13,059권, 고등학교 14,806권이고, 1인당 장서 수는 초등학교 46권, 중학교 38권, 고등학교 31권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 기준에 비교하면 장서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2023)(〈표 8〉 참조).

〈표 6〉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기본 상황(2022.4.)

학교급	학교 수 (개)	학생 수(명)		도서관(실) 수(개)	평균 연간 이용자(명)	평균 연간 이용책(권)	평균 좌석당 학생 수(명)
		계	1관당 학생 수				
초등학교	268	83,827	318	264	5,430	9,288	11
중학교	128	42,601	340	128	1,953	3,304	8
고등학교	82	39,112	477	82	824	1,304	13
특수학교	10	1,286	128	10	-	-	-
합계	488	166,826	-	484	-	-	-

〈표 7〉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및 직원 정보(2022.4.)

학교급	사서교사		직원(사서자격증 보유 여부)		
	사서교사 수	사서교사자격증 보유 교사 수	직원 수	보유자 수	미보유자 수
초등학교	30	29	107	60	47
중학교	18	16	64	44	20
고등학교	23	21	30	2	28
특수학교	-	-	-	-	-
합계	71	66	201	106	95

출처: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2023)

〈표 8〉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학교 장서량(2022.4.)

학교급	학생 수(명)	총 장서 수(권)	1관당 장서량(권)			1인당 장서 수(권)
			계	도서	비도서	
초등학교(264개)	83,827	3,816,120	14,455	14,306	149	46
중학교(125개)	42,601	1,632,375	13,059	12,871	188	38
고등학교(82개)	39,112	1,214,092	14,806	14,659	147	31
특수학교(10개)	1,286	-	-	-	-	-

3.3.2 학교도서관 환경 변화

학교도서관 환경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공동보존자료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도서관의 환경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2023 충청북도교육청 충북교육 기본방향(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2023), 서울미래교육 2030 방향(서울특별시교육청, 2022), 그리고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2019~2023)(문화체육관광부, 2019) 방향을 분석했다.

먼저, 2023 충청북도교육청 충북교육 기본방향을 보면, 충청북도교육청은 2023년 4대 추진계획 및 4개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 삶의 품격을 높이는 감성교육,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복지,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생태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23년 4대 중점사업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전인적 인재육성을 위한 인성·시

민교육, 미래 희망을 열어가는 창의인재 양성, 지역과 함께하는 중복형 온마을 배움터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서울미래교육 2030에서는 미래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행복한 학습자, 나의 교육과정, 역량 기반 교육, 학습하는 조직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행복한 학습자에서는 학생들이 학업 성과를 높이는 것뿐 아니라 학교생활을 즐기고, 친구와의 우정을 쌓으면서 자신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나의 교육과정에서는 전인적 발달을 추구한다는 원칙 속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질 높은 보편적 교육과정을 제공받으면서 모든 학생이 자신의 속도와 관심에 따라 '나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다. 역량 기반 교육에서는 교과 고유의 지식, 교과 고유의 정체성, 교과 고유한 학습 방법을 넘어 하나의 문제, 하나의 현상, 하나의 주제와 연결된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탐구하도록 하는 것이 교수학습과 평가의 전환을 가져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학습하는 조직에서는 교육기관 역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학습 체계의 일부로서 스스로 미래 창조 능력을 끊임없이 키우고 확장시키는 학습조직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울교육시스템을 학습 및 학습자 중심으로 선회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2019~2023) 방향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용 교수·학습활동 강화,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개발·지원 그리고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미래 인재 역량을 배양하고자 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학교도서관은 변화를 통한 교육과정 지원을

우선시하는 사업과 공간 혁신을 바탕으로 미래형 학교도서관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육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더욱이 학교도서관 중심의 소통·공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하는 학습 지원 및 공유 공간을 위한 학교도서관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3.4 충청북도 공동보존자료관을 위한 SWOT 분석

교육청 공동보존자료관 설립 및 운영의 강점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으로서 교육적 역량을 갖춘 자료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상호 협력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협력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광역적 접근성이 우수하고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으며, 공동보존자료관 설립으로 인하여 소속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공간 활용도 극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공동보존자료관 설립 및 운영의 약점은 소규모 공공도서관이 많아 주기적 이관 필요하다. 그리고 초기 공동자료관의 보존자료가 적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과 이관에 따른 인력 및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교육청 공동보존자료관 설립 및 운영의 기회는 교육청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자료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보존자료관의 초기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복합문화공간 구축이 가능하고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협력 사업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청 공동보존자료관 설립 및 운영의 위기

는 4차 산업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정보유통에 따라 도서관에 대한 호감도 및 의존도가 줄어들고,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심화된 서비스에 대한 대응 능력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교육청 공동보존자료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전반적 환경 분석을 통한 SO전략, WO전략, ST전략, WT전략을 제시하면 <표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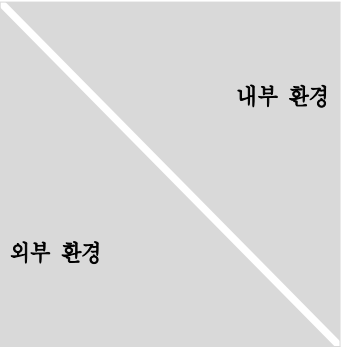
4. 충청북도교육청 공동보존자료관 설립 타당성 및 기대효과

4.1 공동보존자료관의 타당성 및 기본목표 설정

4.1.1 공공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의 설립 타당성

공동보존자료관의 건립의 타당성을 위해 공공도서관 장서의 폭발적 증가, 학교도서관 장서량의 증가, 복합문화공간의 요구도 증가 추

<표 9> 충청북도 공동보존자료관 SWOT분석

	내부 환경	강점 (Strengths)	약점 (Weaknesses)
	외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적 역량을 갖춘 자료적 특성을 갖춘 -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상호협력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협력 가능성이 높아짐 - 광역적 접근성이 우수하고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음 - 공동보존자료관 설립으로 인하여 소속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공간 활용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공공도서관이 많아 주기적 이관이 필요 - 초기 공동자료관의 보존자료가 적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짐 - 이관에 따른 인력 및 비용 발생
기회 (Opportun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자료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공동보존자료관의 초기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복합문화공간 구축 -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협력 사업 확대 	SO 전략(우선 수행)	WO 전략(우선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여유 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하여 전시·교육 공간으로 활용 ✓ 교육청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적으로 공동보존자료관의 공간을 공유 개방 공간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사회분석을 통한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
위협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이 약화됨 - 인터넷 정보유통에 따라 도서관에 대한 호감도 및 의존도가 줄어들음 -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심화된 서비스에 대한 대응 능력 한계가 발생함 	ST 전략(위협 해결)	WT 전략(장기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서포화도가 높거나 소규모 도서관 중 시설환경이 열악한 도서관부터 자료이관 ✓ 공동보존자료관-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 예산 및 인력확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 공동보존자료관의 서비스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 및 확장 할 수 있도록 보완

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공공도서관 장서의 폭발적 증가와 관련해서 볼 때, 현재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매년 장서의 폭발적인 증가로 자료 포화도가 높아 더 이상 장서를 소장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표 4〉, 〈표 5〉 참조). 또한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대부분이 1971~1990년에 개관하였고, 규모가 작아 수장공간이 부족하다. 이때 장서 폐기뿐 아니라 공동보존자료관을 건립하여 공동보존 차원에서 소장자료의 가치, 보존 기간 등을 판단하여 우선순위별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순위에 따라 자료관으로 유입된 자료의 현 상태 유지와 보호가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보존자료관으로서의 특성을 파악하여 운영할 때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전반에 걸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학교도서관 장서의 경우 학교도서관자료 기준에 비해 장서량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표 8〉 참조), 또한, 학교도서관 활용 교수·학습 활동 강화로 인한 신간 장서의 지속적인 증가로 더욱 장서량은 많아 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최근 공간 혁신을 통한 미래형 학교도서관의 모습으로 변화를 시도함에 따라 다목적공간이 요구된다. 소장자료 이관을 통해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학습지원 공유 공간,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등 학교도서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공동보존자료관은 자료 보존과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한 지식 제공과 다양한 문화적 목마름을 해소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공동보존자료관 건립을 통해 소속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전시, 교육, 문화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보존자료관은 충청북도교육청소속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장서포화도를 낮춰주고, 체계화된 자료 보존 기능 향상, 지역도서관 자체 내 공간의 활용 지원, 충청북도교육청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간 네트워크의 허브 기능 강화를 위해 건립이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4.1.2 공공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의 목적 및 기본목표

위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동보존자료관의 목적을 장서량의 증가에 따른 자료수장 공간 부족 문제 해결, 체계적·집중적 자료 관리와 수명연장, 이용의 접근성·편의성 제고 및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대, 충청북도교육청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간 네트워크 강화로 삼았다.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기본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보존 공간확보이다. 참여 도서관의 자료수장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소장자료의 공동이용 및 재활용을 통한 정보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의 관점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활용도가 낮은 자료들을 공동보존자료관으로 이관하여 생기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새롭게 생긴 공간에 최신의 자료들이 채워짐으로써 최신성이 확보되고 이용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이용자의 자료서비스 및 공간활용에 따른 도서관 인식도가 높아질 수 있다.

둘째 공동보존자료관의 보존관리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이다. 공동보존자료관은 각 도서관이 자체 수장할 때보다 공동보존할 경우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보존 및 관리가 가능하고,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용이하고 안전하게 보존가능하며, 이관된 자료 중에서 해당 자료를 소장하지 못한 도서관에게 기증함으로써 자료의 재활용도 가능하며 도서관 간의 자원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추가적으로 상호협력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지식과 문화의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통한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이다. 지역 교육청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지식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 추구가 가능하고 또한,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 사회 시민의 문화적 요구를 해소시켜 주고 지역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

넷째, 교육청 도서관의 역사적 가치가 주는 문헌, 기록물과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자료를 통합하여 서비스하는 복합문화 공간 구현이다. 교육청 도서관의 자료, 학교도서관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적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고, 전시·교육·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양한 도서관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이 가능하다.

4.2 충청북도교육청 공동보존자료관의 기대효과

4.2.1 충청북도 공동보존서고의 일반적 기대효과

자료보존은 현재의 이용서비스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접근이용을 보장하는 사회적 책무

로서 역할을 한다. 정보적 가치가 거의 없거나 이용률이 극히 낮은 자료를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하고 보존할 경우에 생기는 여유 공간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공간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각 도서관마다 추가로 자료수장 공간을 마련하는데 들어가야 할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용서비스 개선의 측면에서 이용률이 낮은 자료와 복본을 공동보존자료관으로 이관할 경우에 기존의 배가된 장서의 최신성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이용자의 도서관의 인식도 및 자료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개별도서관에서 수장할 때보다 공동보존서고에 보존할 경우 물리적, 인위적 훼손에 따른 수선, 복원 및 탈선처리 등을 조직적이고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료의 수명 역시 연장할 수 있다. 각 도서관이 이용도가 낮은 자료를 자료보존관으로 이관할 경우에 서고를 운영 및 관리, 공간 및 자료의 재활용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동보존서고의 자료공유를 통해 도서관 간의 연대의식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다른 다양한 협력활동도 기대할 수 있다.

4.2.2 충청북도교육청 공동보존자료관의 주요 기대효과

일반적인 기대효과 이외에 중요한 기대효과는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의 문헌정보 및 학교도서관 자료의 분산 및 보존 효과와 수집이다. 또한, 정리 기능을 통한 교육지식정보 역량 확대, 교육 및 학교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식과 문화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 줄 수 있다.

1) 도서관의 문헌정보 및 학교도서관 자료의 분산 및 보존 효과

매년 자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공공도서관의 장서 포화도는 100%에 이르고 있어 단위도서관은 서가 공간 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보존자료관을 설립하면 교육청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인쇄본의 분산 및 공동으로 자료를 보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의 교수·학습활동을 강화하면서 신간도서의 필요성 및 공간 활용의 변화로 인하여 자료 보존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청 공공도서관의 교육 분야에 특화된 자료와 초중고 학교도서관의 다양성에서 존재하는 교육 분야 자료 등을 수집정리 보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적 특성을 가진 자료의 보존 및 복원 기능으로서, 참여 도서관이 이관한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되 이관 중에 이미 파·오손되었거나 보존과정에서 발생하는 훼손자료는 수선 및 매체변환 등을 통하여 복원 및 보존할 수 있다.

2) 수집 및 정리 기능을 통한 교육지식정보 역량 확대

교육청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서 학교 및 교육분야의 도서 및 기록물 등의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할 수 있다. 교육청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자료 통합관리 및 지원을 통해 시설, 자료, 인력(사서 및 사서교사)을 보강할 수 있고, 교육청 공공도서관이 보유한 다양하고 집적된 지식정보자원 및 도서관 서비스를

학교도서관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만의 특성이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교육청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연계한 자료관리시스템 및 운영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교육지식 정보 역량을 확대 할 수 있다.

교육 및 학교도서관 관련 정보를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DB를 구축하고 연계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다. 향후 교육 분야의 문헌을 집중적으로 구축하여 이를 활용한 특화된 서비스를 진행하고, 학교도서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 기록물 등을 수집, 정리하여 교육지식 정보역량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동자료조본관의 자료 및 시설을 활용한 서비스 확대

공동보존자료관의 소장자료와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열람·대출서비스 및 복사서비스, 참고봉사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또한 상호대차서비스 및 자료의 디지털화 및 제공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서지정보 검색서비스, 온라인 참고봉사서비스,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의 원문 제공도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학교 및 교육 분야 특화 공동보존자료관으로의 가치를 홍보할 수 있는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어린이, 청소년 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사 및 교육청 공공도서관 관련 아카이브 구축 및 전시 서비스도 운영할 수 있다.

4) 지식과 문화의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통한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

공동보존자료관의 설립은 지역 주민들의 지

식정보요구의 해소 및 삶의 질 개선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 사회 시민의 문화적 요구를 해소해주고, 전시 및 교육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생활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소통 및 공유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4.3 공동보존자료관 최대 한계수장 연한 제시 (30년, 50년)

본 연구에서는 공동보존자료관의 장기적 운영을 고려하여 건립될 자료의 규모를 예측하기 위해서 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공동보존자료관 최대 한계수장 연한을 30년과 50년으로 구분해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적정장서량 대비 초과 장서량 규모와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적정장서량 대비 초과 장서량 규모를 측정했다.

4.3.1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적정장서량 대비 초과 장서량 규모 측정

먼저, 교육청 공공도서관의 이관 장서량을 계산하면 <표 10>과 같다. 공동보존자료관 건립 시 초기에 이전해야 할 장서량은 최대 장서량(143,133권)에서 적정 장서량(119,279권)을 제외한 151,933권으로 나타났다. 복본 및 완전 폐기 도서에 따라 변동이 있겠지만 초기 이관 장서는 모든 도서관의 이관 장서량의 30%인 45,580 권으로 산정했다.

4.3.2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적정장서량 대비 초과 장서량 규모 측정

학교도서관의 경우 전체 총장서량은 6,789,209

<표 10> 충청북도교육청소속 공동보존자료관 이관 공공도서관 초기 장서량 제시

도서관명	적정 장서량	최대 장서량 (적정 장서량 1.2배)	이관 장서량 (최대 장서량-적정 장서량)
괴산교육도서관	37,104	44,520	7,416
단양교육도서관	15,514	18,616	3,102
보은교육도서관	35,166	42,197	7,031
영동교육도서관	32,667	39,200	6,533
옥천교육도서관	36,328	43,593	7,265
금왕교육도서관	31,370	37,643	6,273
음성교육도서관	26,234	31,478	5,244
제천학생회관	38,231	45,875	7,644
증평교육도서관	30,953	37,142	6,189
진천교육도서관	21,611	25,932	4,321
미원교육도서관	15,970	19,163	3,193
충청북도교육도서관	297,313	356,776	59,463
충청북도교육문화원	6,620	7,936	1,316
증원교육도서관	15,442	18,531	3,089
충청북도증원교육문화원	119,279	143,133	23,854
합계(초기 이관 장서)	759,802	911,735	151,933

권이다. 또한 1인당 장서량은 초등학교의 경우 46권, 중등의 경우 39권으로 높은 실정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264개교로 1개교 평균 장서량은 14,455권으로 전체 학교 장서량은 약 3,816,120권이다. 중학교의 경우 128개교로 1개교 평균 장서량은 13,059권으로 전체 학교 장서량은 약 1,632,375권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82개교로 1개교 평균 장서량은 14,806권으로 전체 학교 장서량은 약 1,214,092권이다. 초중고등학교의 전체 장서량은 대략 6,789,209권이다.

한국도서관기준(2013년)에 따르면, 학교도서관 장서 구성 기준은 초등학교 1인당 10권 이상, 중학교 20권 이상, 고등학교 30권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평균 1인당 장서 수를 보면, 학교도서관 장서 구성 기준에 비하여 초중고 모두 높아 폐기 및 공동자료보존관으로 이관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적정장서량 등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초·중학교 도서관의 경우 전체 장서량의 20%,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장서량의 10%를 초기에 이관하고, 매년 10%씩 이관하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총 폐기 및 이관 장서는 1,218,937권으로 나타났다. 복본 및 완전 폐기 도서에 따라 변동이 있겠지만 학교도서관은 복본 및 폐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 이관 장서는

모든 도서관의 이관 장서량의 10%인 121,894권으로 산정했다(〈표 11〉 참조).

4.3.3 충청북도 공동보존자료관 최대 한계수 장 연한 제시

위의 분석내용을 기반으로 보존서고 공간 적정 수용 장서량 기준이 m²당 280권을 적용·산정했다. 즉, 공공도서관 초기 이관 장서는 45,580권, 학교도서관 이관 장서는 121,894권으로 산정하여 건립 시 총 167,474권을 제안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포화도에 따라 초기 장서량은 총 167,477권이며 매년 10% 증서를 기준으로 개관 이후 30년, 50년까지 측정할 것이다(〈표 12〉 참조).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지역에 공동보존관 설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각 도서관의 이용률이 저조한 자료를 공동보존자료관으로의 이관 후 기존 공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학교도서관의 교육과정의 적극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보존자료관 구축 타당성과 기대효과 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

〈표 11〉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전체 장서량(2022.4.)

학교급	학교 수	평균 장서량 (권)	전체 장서량 (비도서 포함)	평균 1인당 장서 수(권)	초·중(20%) 고(10%)
초등학교	264	14,455	3,816,120	46	763,224
중학교	128	13,059	1,632,375	38	334,304
고등학교	82	14,806	1,214,092	31	121,409
특수학교	10	-	-	-	-
합계	484	-	6,789,209	-	1,218,937

〈표 12〉 충청북도교육청소속 공동보존자료관 향후 30년, 50년 연한 제시

초기 보존자료관 기본 장서: 167,474권									
건립 + 1년	184,225	건립 + 11년	353,155	건립 + 21년	522,085	건립 + 31년	691,015	건립 + 41년	859,945
건립 + 2년	201,118	건립 + 12년	370,048	건립 + 22년	538,978	건립 + 32년	707,908	건립 + 42년	876,838
건립 + 3년	218,011	건립 + 13년	386,941	건립 + 23년	555,871	건립 + 33년	724,801	건립 + 43년	893,731
건립 + 4년	234,904	건립 + 14년	403,834	건립 + 24년	572,764	건립 + 34년	741,694	건립 + 44년	910,624
건립 + 5년	251,797	건립 + 15년	420,727	건립 + 25년	589,657	건립 + 35년	758,587	건립 + 45년	927,517
건립 + 6년	268,690	건립 + 16년	437,620	건립 + 26년	606,550	건립 + 36년	775,480	건립 + 46년	944,410
건립 + 7년	285,583	건립 + 17년	454,513	건립 + 27년	623,443	건립 + 37년	792,373	건립 + 47년	961,303
건립 + 8년	302,476	건립 + 18년	471,406	건립 + 28년	640,336	건립 + 38년	809,266	건립 + 48년	978,196
건립 + 9년	319,369	건립 + 19년	488,299	건립 + 29년	657,229	건립 + 39년	826,159	건립 + 49년	995,089
건립 + 10년	336,262	건립 + 20년	505,192	건립 + 30년	674,122	건립 + 40년	843,052	건립 + 50년	1,011,982

방법과 현황조사, 그리고 실태조사 방법을 진행했다.

공동보존자료관의 건립의 타당성은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장서의 폭발적 증가와 환경변화에 따른 도서관의 공간 구성의 변화, 그리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기대효과는 도서관의 자료의 분산 및 보존효과, 교육지식정보 역량 확대, 자료 및 시설 활용 확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이다.

보존서고의 적정 수용 장서량은 교육청 공공도서관의 경우, 공동보존자료관 건립 시 초기에 이전해야 할 장서량은 최대 장서량(143,133권)에서 적정 장서량(119,279권)을 제외한 151,933권으로 나타났다. 복본 및 완전 폐기 도서에 따라 변동이 있겠지만 초기 이관 장서는 모든 도서관의 이관 장서량의 30%인 45,580권으로 산정했다.

학교도서관의 경우 전체 총 장서량은 6,789,209권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264개교로 1개교 평균 장서량은 14,455권으로 전체학교 장서량은 약 3,816,120권이다. 중학교의 경우 128개교로 1개교 평균 장서량은 13,059권으로 전체학교

장서량은 약 1,632,375권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82개교로 1개교 평균 장서량은 14,806권으로 전체학교 장서량은 약 1,214,092권이다. 초중고등학교의 전체 장서량은 대략 6,789,209권이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적정 장서량 등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초·중학교 도서관의 경우 전체 장서량의 20%,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장서량의 10%를 초기에 이관하고, 매년 10%씩 이관하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총 폐기 및 이관 장서는 1,218,937권으로 나타났다. 복본 및 완전 폐기 도서에 따라 변동이 있겠지만 학교도서관은 복본 및 폐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 이관 장서는 모든 도서관의 이관 장서량의 10%인 121,894권으로 산정했다.

위의 분석내용을 기반으로 보존서고 공간 적정 수용 장서량 기준이 m²당 280권을 적용·산정했다. 즉, 공공도서관 초기 이관 장서는 45,580권, 학교도서관 이관 장서는 121,894권으로 산정하여 총 167,474권을 제안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포화도에 따라 초기 장서량은 총 167,477권이며 매년 10% 증서를 기준으로 개관 이후

30년, 50년까지 측정된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자료 관리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자료의 수명을 연장하고 희귀자료 및 귀중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참 고 문 헌

- 강봉숙 (2022). 학교도서관 장서 배가를 위한 소요 서가 산출에 대한 논의.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1), 347-364. <http://doi.org/10.4275/KSLIS.2022.56.1.347>
- 강은영, 장덕현 (2018).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운영 모형 연구: 부산·경남지역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2), 105-129. <https://dx.doi.org/10.16981/kliss.49.2.201806.105>
- 강현민 (2006). 공공도서관협력망을 이용한 공동보존도서관 및 국가보존도서관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1), 29-53.
- 곽승진, 노영희, 강은영, 김정택, 곽우정 (2020). 충청남도 공공도서관 보존서고 분석에 기초한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4), 191-212. <http://doi.org/10.14699/kbiblia.2020.31.4.191>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23.5.19.). 출처: <https://www.libsta.go.kr/>
- 문화체육관광부 (2019).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2019~2023).
출처: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77321>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 박옥남, 이정미, 배경재, 차성중 (2017). 국립중앙도서관 서비스의 미래 방향성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4), 269-299. <http://doi.org/10.14699/kbiblia.2017.28.4.269>
- 변우열, 이병기, 송기호, 이미화 (2016). 학교도서관 장서관리 실태조사 및 장서관리지침(자료 선정 기준 포함) 연구.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 서울교육중기발전계획위원회 최종보고서(서울미래교육 2030).
- 서혜란, 김선애, 강은영 (2015). 공공도서관 자료보존의 현황과 과제. 국립중앙도서관.
- 신배재, 곽승진 (2021). 도서관 자료의 공동보존과 활용을 위한 관중별 사서 인식조사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 55(3), 259-280. <http://doi.org/10.4275/KSLIS.2021.55.3.259>
- 윤희윤 (2013). 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모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51-74. <http://doi.org/10.16981/kliss.44.3.201309.51>

- 장병진 (2019).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자료 공동보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강원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정책전공.
- 조용완, 노지현 (2013). 공동보존서고의 보존환경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367-397.
<http://doi.org/10.16981/kliss.44.4.201312.367>
- 청주시 (2022). 제3차 청주시 도서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
- 최미연 (2015). 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건립과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정책전공.
-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2023.5.20.).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출처: <https://www.cbe.go.kr/cbe/cm/cntnts/cntntsView.do?mi=11735&cntntsId=35630>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 (2013). 한국도서관기준(개정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yon, Woo-Yeoul, Lee, Byeong-Ki, Song, Gi-Ho, & Lee, Mi-Hwa (2016).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School Library Books and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Books. Ministry of Education.
- Cheongju City (2022). A Study on the Mid-to Long-Term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of Cheongju Library.
- Cho, Yong-Wan & Rho, Jee-Hyun (2013). Preservation environments of cooperative library storage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4), 367-397.
<http://doi.org/10.16981/kliss.44.4.201312.367>
- Choi, Mi Youn (2015). A Study on the Erection and Operation of Cooperative Repository Stack Rooms in Public Library: With Focus on the Public Library of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Major in Education Polic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al Policy and Administration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 Chungcheongbuk-do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2023).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 Joint Preservation Library for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Chungcheongbuk-do Education Research&Information Institute.
- Chungcheongbuk-do Education Research&Information Institute (2023.5.20.). The Basic Direction of Chungbuk Education. Available:
<https://www.cbe.go.kr/cbe/cm/cntnts/cntntsView.do?mi=11735&cntntsId=35630>
- Jang, Byong Jin (2019). Research on the Co-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Materials of Public

- Libraries and School Libraries: With Focus on the Kangwon-do Office of Education. Major in Education Polic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al Policy and Administration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 Kang, Bong-Suk (2022). Discussion on calculating the required shelves for arranging the school library colle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1), 347-364. <http://doi.org/10.4275/KSLIS.2022.56.1.347>
- Kang, Eun Yeong & Chang, Durk Hyun (2018).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for university libraries: with a special reference to National Universities in Busan/Gyeongnam a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2), 105-129. <https://dx.doi.org/10.16981/kliss.49.2.201806.105>
- Kang, Hyen-Min (2006).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repository library and repository library by using of public library cooperative network.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1), 29-53.
- Kwak, Seung-Jin, Noh, Younghee, Kang, Eun Yeong, Kim, Jeong-Taek, & Kwak, Woojung (2020).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cooperative repository librari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eservation library at the Chungcheongnam-do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4), 191-212. <http://doi.org/10.14699/kbiblia.2020.31.4.191>
- Ministry of Culture (2019). The 3rd Basic Plan for School Library Promotion(2019~2023). Available: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77321>
- Ministry of Culture (2022). 2022 A Manual o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for Public Library.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2023.5.19.) Available: <https://www.libsta.go.kr/>
- Park, Ok Nam, Lee, Jeong-Mee, Bae, Kyung-Jae, & Cha, Sung-Jong (2017). A study on future direction and improvement of services for national library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4), 269-299. <http://doi.org/10.14699/kbiblia.2017.28.4.269>
-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22). Final Report of the Seoul Education Medium-Term Development Planning Committee(Seoul Future Education 2030).
- Shin, Bae-Jae & Kwak, Seung-Jin (2021). Analysis of the perception surveys on librarians by type of library for the collaborativ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library materi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3), 259-280. <http://doi.org/10.4275/KSLIS.2021.55.3.259>

- Special Committee on Library Standards of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3). Standards for Korean Libraries. 2nd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Suh, Hye-ran, Kim, Sun-ae, & Kang, Eun-yeong (2015). The Status Quo and Tasks of the Collection Preservation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National Library of Korea.
- Yoon, Hee-Yoon (2013). A model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for publ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3), 51-74. <http://doi.org/10.16981/kliss.44.3.201309.51>